

반	번호

이름	
----	--

1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- ① 주어와 서술어가 반드시 겹쳐서 드러나야 한다.
- ②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.
- ③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조합되어 만들어질 수도 있다.
- ④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.
- ⑤ 생각을 완결된 형식으로 나타내는 최소한의 형식이다.

2 <보기>의 문장에 대한 분석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〈보 기〉

힘센 철수가 짐을 가장 많이 들었다.

- ① ‘힘센’, ‘가장’, ‘맑이’는 부속 성분이다.
- ②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문장이다.
- ③ ‘철수’를 생략하면 문장이 완성될 수 없다.
- ④ ‘짐을’은 주어, 서술어와 같은 필수 성분이다.
- ⑤ ‘힘센’은 문장 앞에서 문장을 꾸미는 기능을 한다.

3 다음 밑줄 친 문장 성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?

- ①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.
- ② 하늘에서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.
- ③ 오늘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진다.
- ④ **과연** 그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?
- ⑤ 이 책은 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.

4 <보기>의 문장 속 문장 성분 분석해 쓰시오.

〈보기〉

그는 의사가 아니다.

5 다음 중 겹문장이 아닌 것은?

- ① 토끼가 귀가 길다.
- ② 결국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.
- ③ 나는 철수를 만나 집에 갔다.
- ④ 네가 꿈을 꼭 이루길 기도할게.
- ⑤ 미애는 한숨을 쉬며 돌아앉았다.

6 다음 중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은?

- ① 곳곳에서 인심 난다.
- ② 도랑 치우고 가재 잡고
-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.
- ④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늘 말이 곱다.
- 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.

【7-9】 <보기>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〈보 기〉

- ㉠ 우리 집은 대문이 크다.
㉡ 철수는 영희가 돌아오기를 바란다.
㉢ 성호가 귀가 아프도록 노래를 불렀다.

7 ㉠에 안긴 절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문장의 가장 앞에 쓰인다.
- ② 고정된 표지가 없이 쓰인다.
- ③ 주문장의 주어가 두 개이다.
- ④ 뒤에 오는 성분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.
- ⑤ 부속 성분으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.

8 ㉠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어미 ‘-기’가 결합해 명사가 되었다.
- ② 특정한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서 쓰인다.
- ③ 어미 ‘-기’를 ‘-(으)ㄴ’으로 바꿔 쓸 수 있다.
- ④ 동작 행위의 주체가 전체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.
- ⑤ 앞긴 절은 서술어 앞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.

소 단 원 평 가 1회

9 ㉠에 안긴 절과 다음 밑줄 그은 부분의 문장 성분이 같은 것은?

- ① 이 나무는 가지가 많다.
- ② 장마가 드디어 지나갔다.
- ③ 하늘은 눈이 부시게 빛이 났다.
- ④ 그 배가 충무공이 만드신 거북선이다.
- ⑤ 재운이는 형진이가 전학 간 사실을 몰랐다.

【10－12】 <보기>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<보 기>

㉠ 봄이 오면 꽃이 핀다.
㉡ 너무 더워서 기운이 없다.
㉢ 그 서점은 내가 어제 갔던 곳이다.

서술형

10 ㉠에 사용된 연결 어미를 분석하고, ㉡이 어떠한 이어진 문장에 속하는지 그 종류를 쓰시오.

11 다음 중 ㉠과 같은 의미의 이어진 문장은?

- ① 해가 지고 먹구름이 몰려 왔다.
- ②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.
- ③ 집에 가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.
- ④ 모두가 그를 만나려고 달려 나갔다.
- ⑤ 미술 준비물을 사러 문구점을 찾았다.

12 다음 중 ㉠과 같은 유형의 절이 있는 문장이 아닌 것은?

- ① 그 책은 나도 읽고 있는 책이다.
- ② 아이가 엄마에게 빠르게 달려왔다.
- ③ 어제 연호가 산 불펜은 파란색이다.
- ④ 이 곡은 나도 즐겨 들었던 음악이야.
- ⑤ 나는 이번 겨울에 여행을 갈 계획이다.

【13－15】 다음 문장에서 안긴문장을 찾아 쓰시오.

13 나는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.
()

14 코끼리가 코가 길다.
()

15 동생은 “나도 김밥을 먹고 싶어.” 라고 말했다.
()

【16－19】 <보기>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<보 기>

㉠ 산이 높고 물이 맑다.
㉡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다.
㉢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온다.
㉣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.
㉤ 냇물이 깊어서 아이가 건널 수 없었다.

16 <보기>의 ㉠~㉤을 출문장이 이어진 방식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?

- ① ㉠, ㉡ ② ㉠, ㉣ ③ ㉠, ㉣, ㉤
- ④ ㉡, ㉣, ㉤ ⑤ ㉡, ㉣, ㉤, ㉣

17 ㉠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앞의 문장은 뒤의 문장의 원인이 된다.
- ② 연결 어미를 ‘-지만’으로 교체해도 의미는 같다.
- ③ 앞의 문장이 뒤의 문장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.
- ④ 앞의 문장은 뒤의 문장과 대조의 의미를 지닌다.
- ⑤ 앞과 뒤의 문장 순서를 바꿔도 의미 변화는 없다.

18 ㉠과 같은 방식으로 <보기>의 두 문장을 이어 쓰시오.

<보 기>

• 날씨가 좋다
• 우리는 산책을 간다.

()

소 단 원 평 가 1회

19 ㉔에 대한 설명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- ① 앞 절은 뒤 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.
- ② 앞 절과 뒤 절의 자리 바꿈이 자유롭다.
- ③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.
- ④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종속적이다.
- ⑤ 앞 절이 뒤 절 주어의 뒤로 이동할 수 있다.

20 <보기>의 ㉠~㉔중, 어법에 맞는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?

<보 기>

- 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.
- ㉡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가자.
- ㉢ 냇물이 깊어서 다른 길로 돌아가자.
- ㉣ 창호는 성실해서 성공할 것이다.
- ㉤ 숙제는 내일 제출해야 하니까 빨리 하자.

- ① ㉠, ㉡,
 ② ㉠, ㉣
 ③ ㉠, ㉣, ㉤
 ④ ㉡, ㉣, ㉤
 ⑤ ㉡, ㉣, ㉤, ㉥